

'개신교 강요' 초등교사 직위해제

수업중 "하나님 믿으면 천당, 불교 믿으면 지옥"

경북 경주초등학교(교장 최창운)에서 학부모들이 특정 교사의 퇴진을 요구하며 자녀의 등교를 막고 '촛불집회'를 여는 일이 벌어졌다. 학부모의 자녀 등교 거부로 전교생 1418명 중 182명만 등교했다. 학부모대책위원회는 4학년 담임 김모(59·여) 교사가 스스로 퇴임하거나 출근 정지 조치를 취해줄 것을 경주교육청에 진정서로 제출했다. 이에 경주교육청은 7월 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문을 일으킨 교사에 대해 3개월간 직위해제 처분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습권 침해와 종교교육, 강압적 생활지도 등 직무방식 능력이 부족한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했으며 특정 장소를 근무지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학부모가 퇴진을 요구한 문제의 교사는 4학년 담임인 김모 교사. 학부모들은 진정서에서 "김모 교사는 '하나님을 믿으면 천당에 가고 불교나 다른 종교를 믿으면 지옥 불에 떨어진다'고 아이들에게 강압적으로 종교관을 주입했다"며 "기도를 하고 수업을 시작하거나 성경을 읽는 것으로 수업을 시작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모 교사가 일요일 아침 아이들 집으로 찾아가거나 교회에 가자는 전화를 걸어 아이들을 만난 후 경주 시내의 교회들을 차례로 돌았고, 집안행사로 교회에 빠진 학생은 일요일엔 어떤 약속도 만들어

서는 안 된다"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혼났다고 주장했다.

학부모 743명은 경주교육청에 해당 교사의 전출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6월 27일 교육청 면담을 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자 수업 거부, 촛불집회라는 단체행동에 들어갔다. 학부모들은 "김모 교사가 상담을 하면서 '아이가 너무나 문제다'고 말하며 '아이가 너무나 문제다'고 말하며 '아이가 너무나 문제다'고 말하며 '아이가 너무나 문제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동료 교사와 학부모, 지역 상인을 고소·고발한 건수가 600건이나 되는 등 교사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모 교사는 오히려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교회에 가자고 권유한 적은 있지만 강제로 데려간 적은 없다"고 반박하고 "조용히 수업하고 있는데 집단적으로 나를 공격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이야기가 모두 허위"라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트린 것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학교 측은 특정 종교를 강요한 것과 수업 거부 사태를 일으킨 데 책임을 물어 김모 교사에게 경고장을 보낸 상태. 최창운 교장은 "송구스럽지만 학부모 연대의 등교 거부



7월 1일 경주교육청을 찾은 학부모들(위), 학부모들의 자녀 등교 거부로 텅빈 교실.

에 따라 아동들의 학습권 침해가 있으니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아동들이 조속히 등교해 학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밝혔다.

전국교사불가항의회 부산지부 회

장을 맡고 있는 부산 해동고 강석표 교장은 "해동고는 불교 중립학교이지만 기독교 학생들이 예배를 보게 배려해준다. 부활절에는 선생님들에게 제란을 건네줄 정도로 학생들의 종교를 존중해주는 분위기"라며

이번 사태를 안타까워했다.

한편 경주교육청은 진상조사를 통해 진정서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린 뒤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울산불교방송 6월 30일 첫 전파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전하는 방송 될 것'

울산지역 불자들을 위한 부처님 법음이 6월 30일 첫 전파를 뒀다. 울산불교방송(사장 전영도)은 30일 울산롯데호텔에서 개국법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불교방송 이사장 영담 스님과 울산불교방송 운영위원장인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울산불교방송 전영도 초대사장, 박맹우 울산시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해 가운데 진행했다. 울산불교방송 운영위원장을 맡은 정우 스님은 환영사에서 "울산 지역 불자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개국 불사

를 원만하게 회향한 만큼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을 전하는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불교방송 이사장 영담 스님은 "불자만을 위한 방송이 아닌 모든 울산, 양산 지역 청취자의 가슴 속에 부처님의 말씀이 연꽃처럼 피어나길 바란다"고 치사했다. 울산불교방송은 울산과 양산, 울주 지역을 가청권으로 FM105.3MHz에서 새벽 5시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 하루 21시간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게 된다. 박지원 기자

부산 사찰들 우란분절 행사 다채로워

백중기도 '조상 천도하는 기복 불교' 탈피

불교 5대 명절 중 하나 우란분절(백중)이 그동안 고인이 된 부모와 조상을 위해 재를 올리던 백중기도의 원 제막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은 보물 제875호로 총 10권으로 구성된 고려시대 불교경전이다. 동명불원(주지 정산, 051-624-7667)은 백중기도 회향일인 8월 15일 인근 어르신 1000여 명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마련한다. 49일간의 백중기도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기도기간도 49일에서 37일이나 줄어든

12일이다. <자비도량참법>을 읽으면 죄는 참회하고 죽은 사람의 영혼을 구제해 극락으로 인도한다고 전해진다. 원 제막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은 보물 제875호로 총 10권으로 구성된 고려시대 불교경전이다. 동명불원(주지 정산, 051-624-7667)은 백중기도 회향일인 8월 15일 인근 어르신 1000여 명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마련한다. 49일간의 백중기도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기도기간도 49일에서 37일이나 줄어든

모임을 위한 행사다. 대중공양과 함께 김해 교방전통예술단의 공연이 마련된다.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강선태, 051-711-0700)도 백중기도 회향법회에 맞춰 이색 행사를 준비한다. 백중기도와 같이 조상을 천도하고 원한 맺힌 영가를 천도하는 불교 전통의식으로 성문 스님(부산 선광사 주지)이 '바라춤과 나비춤'을 공연한다. 박지원 기자

현대불교 부산지사 광고·구독 문의 (051)632-0064

장사 성공의 법구 금강삼고저

안되는 장사, 안되는 사업, 산재 사고도 예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법구인 금강삼고저는 밀교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가 보이기만 해도 도망가고 화로부터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며 사업장의 성공을 위해 동서사방에서 인연의 귀인들을 불러드리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불사사에서 장사용 왕 및 사업변장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기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문안쪽 위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동협032-12-193445 이상하

장사와 사업 흥왕의 비방 법구
식당, 기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 중실, 축복당,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클럽, 핸드폰점, 분당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실, 방앗간, 공점,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영험의 구슬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릅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었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갖어요, 어머니는 아들 형제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년 낙방만 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건강장수 하고 관료가 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라고도하고 용왕의 몸에 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해질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다. 구슬로 사갈라 용궁에도 있고 여의륜 관세음부처님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어지는 비방의 법구로 삼고 있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문

제로 인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 준비를 하고, 승진시험도 승진심사관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보궁여의주는 수험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하는 비방의 법구다. 불광사에서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길상 원복으로 품위있게 제작하고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원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준다. (신용카드분할가) 보시가격:95,000원 문의(02)741-4488 동협032-12-193445 이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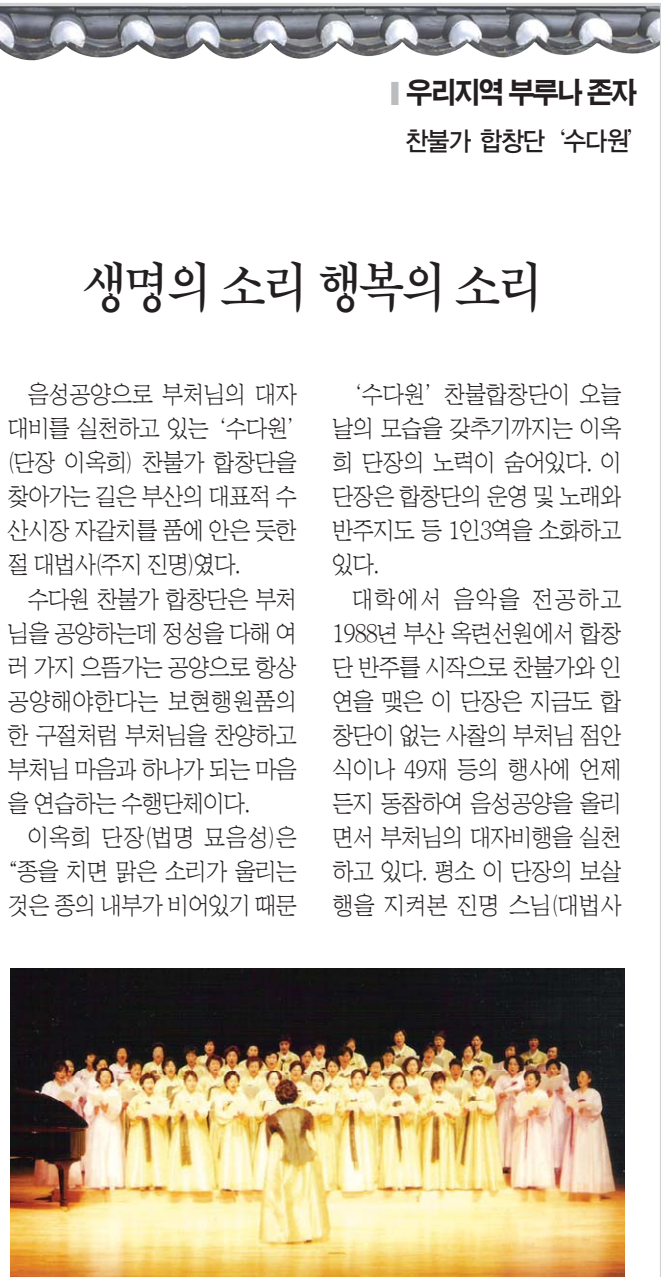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원하는 계획이 성취되는 영험



소중한 남편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은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역시 인연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을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집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다

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비방의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고급소가죽에 금니, 은나노 처리 까지한 일반 지갑과는 비교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불광사에서 지갑 사용하실 분의 물질의 소원과 원대한 계획이 성공되게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원 축원불공을 해드립니다. 남성용 금나노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은나노장지갑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동협032-12-193445 이상하



우리지역 부부나 혼자 찬불가 합창단 '수다원'

생명의 소리 행복의 소리

음성공양으로 부처님의 대자 대비를 실천하고 있는 '수다원' (단장 이옥희) 찬불가 합창단을 찾아가는 길은 부산의 대표적 수산시장 자갈치를 품에 안은 듯한 절 대법사주지 진명였다.

수다원 찬불가 합창단은 부처님을 공양하는데 정성을 다해 여러 가지 으뜸가는 공양으로 항상 공양해야한다는 보현행원풍의 한 구절처럼 부처님을 찬양하고 부처님 마음과 하나가 되는 마음을 연습하는 수행단체이다.

이옥희 단장(법명 묘음성)은 "종을 치면 맑은 소리가 울리는 것은 종의 내부가 비어있기 때문

'수다원' 찬불합창단이 오늘 날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이옥희 단장의 노력이 숨어있다. 이 단장은 합창단의 운영 및 노래와 반주지도 등 1인3역을 소화하고 있다.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1988년 부산 육연선원에서 합창단 반주를 시작으로 찬불가와 인연을 맺은 이 단장은 지금도 합창단이 없는 사람의 부처님 점안식이나 49제 등의 행사에 언제든지 동참하여 음성공양을 울리면서 부처님의 대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다. 평소 이 단장의 보살행을 지켜본 진명 스님(대법사



소속 사찰 다른 40명 회원 '하모니' 정성으로 모은 기금으로 자비행

이며 비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종을 쳐도 소리가 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비우면 생명의 소리, 행복의 소리를 낼 수 있다"며 "마음이 욕심이나 헛된 망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부처님 마음과 같은 소리를 낼 수 없다는 신심으로 모았다"고 설립취지를 밝혔다.

소속 사찰은 다르지만 부처님께 올리는 음성공양이 좋아 인연 있는 불자 몇 명이 한마음으로 모여 시작해 지금은 4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단원들의 나이는 다양하지만 음성공양을 올릴 때의 마음은 나이를 초월해 똑같다.

주지의 배려와 격려로 지금은 서구 남부민동에 위치한 대법사에서 매주 월요일 2시 찬불가 연습을 하고 있다.

또한 '정목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회원들이 정성으로 모은 기금으로 음성공양과 더불어 불우·결실아동 돕기, 고아원·양로원 봉사 등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다.

취재를 마치고 대법사 법당 문을 여는 순간 바다 내음이 코끝을 자극했다. 음성공양으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는 '수다원' 합창단의 목소리가 부산 앞바다의 파도소리와 만나 멀리 퍼져갔다. 오세룡 부산지사장